

진안 농특산물 유통 '탄탄대로'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진안고원몰 꾸준한 성장세로 온·오프라인 활약

진안군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80)과 진안고원몰(<https://jinangowonmall.com/>)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관내 농특산물을 유통 판로를 다지고 있다.

먼저, 지난 2019년 1월 전주시 호성동에 문을 연 진안로컬푸드는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경쟁력 삼아 성장 기도를 달리고 있다.

진안로컬푸드의 매출은 개장 첫해인 2019년도 30억원을 기록했다. 다음 해인 2020년 60억원, 2021년 70억원, 2022년 72억원, 2023년에는 78억원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장 이래 5년 만에 누적 매출 300억원을 돌파했다.

로컬푸드에서 얻어진 매출 중 90%에 유판하는 금액이 농가소득으로 환원되며 때문에 진안군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높은 매출을 견인한 제품은 단연 청정 진안고원에서 사육한 고품질 축산물이 꼽힌다. 이는 중간유통 없이 관내 축산농가에서 납품받아 저렴한 가격은 물론 높은 품질로 인기를 끌며 총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진안고원의 특산품과 지역산원료로 만든 장류(된장·청국장), 흑돼지돈가스, 도라지배즙 등 가공식품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내부 모습



진안고원몰 라이브커머스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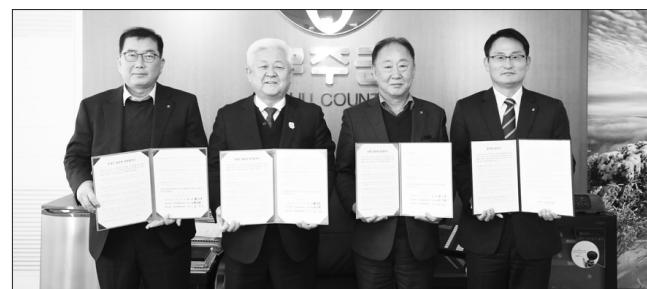
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도 높다. 최근에는 진안고원 팔기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이 2021년에 재단장 이후 32억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면서 전북 대표 공식쇼핑몰로 주목받고 있다.

'진안고원몰' 최고 매출 상품은 청국장, 젓갈 등 농산기공품으로 지난해 7억8천만원(60.1%)을 판매했으며, 흙삼류 1억4천만원, 김치 1억2천만원 순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쇼핑몰 입점도 점점 늘어 현재 119개 농가, 367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한 자체 회원 수도 201,410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서었다.

특히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를 통한 유통망 확대에도 주력해 2022년 우체국쇼핑몰, 생생장터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2023년에는 앤드미켓, 오픈마켓 등 제휴쇼핑몰과 계약을 맺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3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그리고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 본격화

무주군-무주농협-구천동농협, 원활한 시행 위한 협약 체결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4월부터 본격화된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무주군은 13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그리고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농협 관계자들이 자리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와 △단기(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 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 원·2천4백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 하한액 20만 원·200만 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 이율 등을 합의했다.

농업인 월급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며 △농협(무주·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 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는 216농가에 약 22억여 원, 6개월간 180여만 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 보다 20여만 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무주군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중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기간 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 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2월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관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16농가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배, 토마토, 오미자 등 15개 품목(1,551톤)이 해당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55농가·구천동·161농가)이 4~9월까지 6개월간 약정 금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20~2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를 보전(5.0%)하는 방식으로 지원(6천만 원)한다.

올해 6개 월면 216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22억7천1백만 원(월 3억7천9백여만 원)으로 6개월간 농가에 지급하게 되는 평균 월급 액은 180여만 원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 농가에 '장수만세' 무상퇴비 30만포 확대 지원

장수군은 올해 '장수만세' 무상퇴비를 30만포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들에 장수만세 무상퇴비를 지원해왔으나,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고령농·소규모 재배농가는 퇴비를 지원받지 못해 영농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영농활동을 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장수만세 무상퇴비를 기존의 25만 포에서 5만 포를 늘려 30만 포까지 확대 지원

한다. 1,000㎡ 미만의 소규모 재배농가 및 퇴비재배농가도 금년부터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유행별 특화품목 육성의 일환으로 양파재배농가에도 장수만세 무상퇴비를 지원한다.

소규모 재배농가 지원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 중 농지대장에 등록된 1,000㎡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퇴비와 같이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를 실경작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이를 통해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통

무주소방서,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 추진

무주소방서는 5월 말까지 봄철 화재예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화재분석 결과 봄철에 3,413건(31.9%)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3월에 화재건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에 소방서는 봄철 대상별 화재 취약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강화 △축제 및 행사장 안전 관리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관리 △주거시설 안전 확보 △화재예방 홍보·교육 등이다.

무주소방서 관계자는 "봄철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환경농업대학

치유농업과정 개강

진안군은 13일 수강생 48명과 진안환경농업대학 치유농업과정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치유농업과정은 진안군이 관내 우수 자연환경을 활용해 생태건강 치유도시를 건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이에 발맞춰 올해 처음으로 진안환경농업대학 내에 개설됐다. 이번 과정은 민간자격증인 원예심리지도사를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개강 첫날인 13일에는 전북대학교 최정란 교수님을 초빙해 '체험농장과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총 15회 장기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주요내용은 △체험농장과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 제도, 법률 △치유농장 현장견학 △동물, 곤충 치유지원 활용방법 △치유농업 운영 실무 및 시설 안전관리 등이다.

당초 군은 수강생 30명 모집을 공고했으나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당초 계획인원보다 많은 48명을 최종 교육생으로 확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